복지재정난, 결국 기초생활수급자 '머릿수 줄이기'

광주 2300세대 수급중지 날벼락

수급권 유지해 달라 독거노인 등 잇단 민원 제기

올들어 광주에서 모두 2300여세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부양의무자 소득증가시 제외 원칙에 따라 수급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의무자에 소득증가로 인한 수급이 제외된 대상자들의 경우 생활이 크게 어려워져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올 들어 수급중지된 기초생활수급 세대는 ▲동구 136 ▲서구 666 ▲남구 412 ▲북구 522 ▲광산구 571세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상자의 사망, 군입대,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수급이 중지됐다.

하지만 일부 '부양의무자의 소득증가'로 인해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갑작스런 중지 통보에 발을 구르고 있다. 실제 수급중지된 상당수의 노인세대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도 어려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릴 수 없다"며 기초생활수급권을 계속 유지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이던 김모(78·광주시 동구 산수동)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사업소득과 상시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수급중지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동구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지급받은 생계비 700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부양의무자의 지난 2년간의 소득이 국세청으로부터 늦게 통보돼 생계비가 잘못 지급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급중지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모자라 700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자식들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최모(67) 할머니도 최근 함께 살지 않는 아들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수급이 중지됐다. 최 할머니는 "손을 벌리기 힘든 내 처지를 잘 몰라준다. 너무 서운하다"고 담당공무원에게 하소연했다. 지난 7일 경남 거제시청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70대 할머니가 음독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다.

정부가 지난해 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 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130미만에서 100분의 185미만으로 완화시켰지만 '부양의무자제도'가 아직도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이나 부양기피 등의 상황에서도 일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 서구 관계자는 "왕래조차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차례의 면담과 함께 최근 통장거래 내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국민기초생활수급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구 내 월 소득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생계비(2012년 4인 가족 기준 월 149만555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지원 받게 된다.

학급당 10만~20만원으로 '고교학력 높이기'

광주교육청 '졸속행정' 도마위에

광주시교육청이 고교 학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놓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져 졸속이라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일선 고교 67곳에 120만원부터 450만원까지 300만원 안팎의 이른바 학력제고 사업비를 배정했다. 사업비 배정 기준은 1, 2학년은 학급당 10만원, 3학년은 20만원이다. 특성화고(옛 전문계고)는 일반계고의 절반 수준이다.

시 교육청은 이 사업비를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진학지도 교사의 연수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교과나 교사별 협의회, 진학자료나 문항 개발, 학부모 연수 등을 하도록 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입시 컨설팅단 운영, 대입자료 전문지원단 구축, 입시 전문가 연수 등을 중심으로 한 학력제고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 방안에는 정작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기 위한 보충, 심화 등 학생 수준에 맞는 실질적 학력제고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실정에서 학급당 10만~20만원을 배정받은 한 고교 교장은 "교육청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원금이 학력 신장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각 학교에 지원한 사업비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른바 교육감 재량 사업비(특별교육재정수요사업비)로 충당했다. 교육감 재량사업비 12억원 가운데 2억1000만원을 사용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들의 수시모집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진학지도 교사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해 사업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새끼줄 꼬기 재밌어요"

8일 광주시 북구 건국동 주민센터 짚풀공예체험학습장에서 열린 '여름방학 학생사랑 농촌문화체험'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짚풀을 이용해 새끼 꼬는 법을 배우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외 청소년들 문화쉼터 서구 '어울림' 10일 개소

광주시 서구는 "오는 10일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쉼터 '어울림'을 개소한다"고 8일 밝혔다.

서구 쌍촌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어울림'은 117㎡의 면적에 7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위게임·포켓볼·노래방 등 놀이문화 존(zone) 등의 시설을 갖췄다. '어울림'은 앞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못 믿을' 암 검진

오진율 급증…대학병원이 가장 많아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는 암을 잘못 진단해 피해를 봤다는 신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장비를 갖췄다는 대학병원의 오진 사례가 가장 많아 건강검진 결과를 과신하지 말고 신체에 이상 증세가 감지되면 언제든지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오진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507건으로 2010년 213건보다 138%나 늘었다. 2009년에는 247건이었다. 피해 상담이 보상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해 74건으로 2010년(40건)보다 85%나 증가했다.

암 환자는 매년 17만명이 새로 생기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치료하면 완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피해 상담 결과는 정반대 현상을 보여준다.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받았는데도 오진 탓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화를 키운 셈이다.

지난 3년간 암 오진 피해자는 40~60대가 전체의 82.6%(133건)를 차지했다.

암 오진이 가장 많은 질병은 폐암으로 전체의 18.6%(30건)에 달했다. 유방암(27건, 16.8%), 위암(21건, 13.1%), 자궁·난소암(21건, 13.1%), 간암(14건, 8.7%), 대장암(11건, 6.8%), 갑상선암(9건, 5.6%)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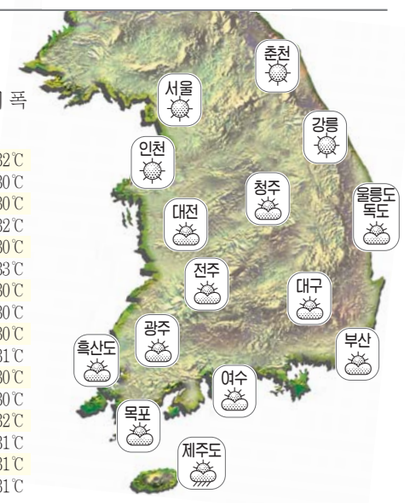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8분 해짐 19시 28분 달뜸 23시 16분 달짐 12시 36분

폭염 주춤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이 한풀 꺾이겠다.

광 주	구름많음	24/32℃
목 포	구름많음	24/30℃
여 수	구름많음	25/30℃
나 주	구름많음	24/32℃
완 도	구름많음	24/30℃
구 례	구름많음	23/33℃
강 진	구름많음	24/30℃
해 남	구름많음	24/30℃
장 흥	구름많음	23/30℃
순 천	구름많음	22/31℃
영 광	구름많음	24/30℃
진 도	구름많음	24/30℃
전 주	구름많음	24/32℃
군 산	구름많음	24/31℃
남 원	구름많음	23/31℃
흑산도	구름많음	23/3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5~2.5m
먼바다	동~남동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2.0~3.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피부질환지수: 경고 보통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1.0~2.0m
먼바다	동~남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6:25 19:14	11:46 00:00
여수	00:32 13:32	06:58 19:15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15(수)
날 씨						
최저/최고	24/29	24/29	23/30	22/30	22/30	22/30

더위 한풀 꺾이나 폭염경보 '주의보'로 낮춰

지칠 줄 모르던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나주·구례·화순을 시작으로 광주와 전남 8개 시군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폭염주의보로 한 단계 낮아졌다.

기상청은 9일 낮기온이 29~33도 사이에 머무는 등 광주·전남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화 되면서 차츰 평년기온(낮 최고 30도 안팎)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11호 태풍 '하이쿠이(HAIKUI)'에서 변질한 온대저기압의 영향으로 10일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11일과 12일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9일 남해안에는 역파도인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돼, 해수욕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폐렴 유발 레지오넬라균 검출

광주시 대형시설 15곳 적발

불볕더위로 다중이용시설의 냉방기 사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광주시는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종합병원과 요양원, 대형목욕탕, 백화점의 냉각탑수와 배관 등 총 292건을 검사한 결과, 15건(5.1%)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는 레지오넬라균 증식을 막으려면 냉방기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레지오넬라균은 오염된 분사 물방울이나 먼지 등을 통해 감염되며 폐렴이 동반되지 않으면 치료 없이 5일 이내 자연 치유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휴먼스피치 전문교육 : 스피치불안증해소, 발표, 설득, 토론, 프리젠테이션, 협상, 사회진행, 방송토론, 방송연설, 커뮤케이션스킬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

스피치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진정한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설득을 잘하는 사람! 공감을 이끌어 내는 사람!

어디서나 배울 수는 있어도 아무나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휴먼스피치'에서는 전문교수의 특별한 지도를 받습니다!

탈출!! 스피치불안증

휴먼스피치문화원 대표/원장 이 진 학

- 휴먼스피치문화원 / 휴먼AD / 휴먼Learner 대표
-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
- 계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강사
- 휴먼포럼 지도교수

著書 • 論文

-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와 실제 2007. 5쇄
- 선거전략지침서 2010. 선거연설과 그 전략 1998.
- 스피치교육의 과제와 진로(論) 2005.
- 후보자 TV토론에서의 언어적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 차이(論) 2004.
- 남북경제협력과 지역기업의 대응방안(論) 1992.

스피치커뮤니케이션 전문교육과정

교육의 개요

교육기간 : 2012년 9월 4일(화) ~ 12월 18일(화) 15주과정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19시~22시 (3시간 집중교육)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203)
교육대상 : 공무원, 기업CEO, 전문직종사자, 금융인, 일반직장인
주요내용 : 스피치불안증해소 / 표현기법훈련(비언어훈련) / 언어적기법(메시지구성법, Attention skill) / 설득기법 설명기법 / 공감기법 / 커뮤니케이션스킬 / 모니터링훈련

교육신청

접수기간 : 2012. 8. 6(월) ~ 2012. 8. 24(금)
인터넷신청: 네이버카페-휴먼스피치문화원 (광주교육센타) 수강신청
전화 팩스 : 교육지원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Fax. 053-755-0326)
이메일신청 : humanspeech@naver.com

커리큘럼

	주요 교육 내용	주요 교육 내용
제1강 ~제2강	Orientation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원리 이해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Vocal 요소 훈련(목소리요소 트레이닝)
제3강 ~제4강	비언어적 스피치스킬 Body-motion(스피치 상황에서의 동작)	비언어적 요소를 활용한 실습훈련 스피치불안증 극복훈련
제5강 ~제6강	언어적 스피치스킬 메시지구성기법(조리있는 구성법)	Attention skill 서두기법(주목시키는 기법)
제7강 ~제8강	논리적 메시지기법 주장(claim)세우기, 이유와 증거제시하기	설득스피치를 위한 issue화 기법 문제제기를 통한 쟁점만들기 기법
제9강 ~제10강	결론과 마무리 기법 설득적 결론기법, 마무리기법, 결언기법	테마스피치 실습훈련(Full Version) 종합실습훈련과 모니터링(평가채점훈련)
제11강 ~제12강	청중분석과 청중대응기법 청중파악, 청중분석, 청중리딩기법	설득의 원리와 설득커뮤니케이션 설득기법을 활용한 설득스피치기법
제13강 ~제14강	interpersonal 커뮤니케이션 스킬 대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훈련	테마스피치 종합실습훈련 Self-monitoring훈련-피드백실습
제15강	스피치경연대회-3분스피치 수료식-휴먼포럼 구성	휴먼스피치교육은 체계적, 전문적, 실용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 휴먼스피치교육은 원리+기법을 통한 실습모니터링 중심교육을 합니다.
※ 80% 이상 출석한 분들은 「스피치커뮤니케이션 3급 자격」 응시기회를 드립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교육의 특징

1. 탄탄한 원리와 기법을 바탕으로 체계화된 교육을 실시합니다.
2. 스피치를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기법을 터득합니다.
3. 스피치불안증에서부터 자신감 스피치까지 실습교육을 합니다.
4. 전문교수 및 강사진으로 교육생 한분 한분을 책임집니다.
5. 교육이수 후 휴먼포럼을 통해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해드립니다.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인간적인 말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휴먼스피치문화원 HUMAN CULTURE CENTER

교육문의 1588-6117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극락전 납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벌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봉분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빈정사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